

† <미사 및 본당모임 안내>	
금주 미사 독서: 이중재 프란치스코, 전은숙 글라라	+지난주 우리의 정성
다음주 미사 독서: 홍진국 클레멘스, 한영주 리드비나	봉헌금: \$ 227
금주 미사 복사: 김지원 카린	감사헌금(유도일 형제님): \$300
다음 주 미사 복사: 윤지희 데레사	연미사 봉헌: \$ 30
금주 미사 해설: 성인영 마리스텔라	생미사 봉헌: \$ 40
다음 주 미사 해설: 김지원 카린	-----
반 주: 조은영 베다, 강동현	합계 : \$ 597
회 계: 황성필 요한, 친교실 정리: 3 구역	봉헌봉사: 유지원 카타리나
	다음주 봉헌봉사: 성인영 마리스텔라
주 일 미 사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고 백 성 사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부터 미사 전까지.
목 주 기 도	매주 미사 20분전 (오후 4시 40분 부터 4시 55분까지)
성 가 대 연 습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지하 성가 연습실]
친교/간식 모임	매주 미사 후 [지하 친교실]
† <공동체 모임 알림판>	
남성교우 기도모임	격주 금요일 (5 월 31 일 저녁 8:00, 사제관)
성모회 금요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오후 1 시 (장소: club.catholic.or.kr/thekccm 게시판 참고)
교리 모임	미정
성경 통독 모임	격주 금요일 (6 월 7 일 저녁 7:00, 장소: 페이스북 클럽 참고)
골프 모임	동계 휴식기
테니스 모임	매주 일요일 (Nielsen Tennis Stadium, 시간: 페이스북클럽 참고)
† <구역모임 알림판>	
1 구역	매월 둘째주 토요일
2 구역	매월 첫째주 토요일
3 구역	매월 셋째주 토요일
대학원 구역	미정
학부생 구역	미정
† 오늘의 묵상	
삼위일체는 사랑의 신비입니다. 사랑을 해 본 사람이라면 삼위일체의 ‘단일성’(세 위격이 하나의 신성을 이룸)과 ‘다양성’(한 분 하느님께서 세 위격으로 구별됨)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의 ‘단일성’을 이해하고자 남녀 사이의 사랑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남남이었으나 남자와 여자는 서로를 알게 되면서 점점 더 많은 시간을 같은 공간 안에 머무르고, 사랑이 깊어지면서 서로 닮아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남자와 여자는 더 이상 둘이 아니라 한 몸을 이룹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단일성은 바로 이러한 사랑에 비추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서로 너무나 사랑하여 완전한 일치의 공동체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을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라고 합니다. 삼위일체의 ‘다양성’은 부모와 자식 사이의 사랑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처음에는 어머니 배 속에서 하나가 된 상태로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아기가 태어나고 자라면서 조금씩 그 거리가 멀어집니다. 배 속에서 품속으로, 품속에서 집 안으로, 집 안에서 동네로, 동네에서 다른 지역으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이렇듯 부모와 자식은 처음에는 온전히 한 몸이었다가 사랑이 성숙되면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삼위의 하느님께서 서로 사랑하신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랑에 비추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신다는 면에서 우리는 서로 다름, 곧 ‘다양성’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영원히 구분된다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삼위일체는 사랑의 신비입니다. 남녀의 사랑처럼 서로 다른 위격이 온전히 하나가 된 것이며, 부모와 자식의 사랑처럼 서로의 영역을 인정해 주는 사랑이 곧 삼위일체의 신비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삼위일체의 신비, 곧 사랑의 신비를 살아가도록 초대받았습니다.	

주임 신부

유성모 요셉
(608) 293-1114

사목외장

이중재 프란치스코
(608) 772-5701



홈페이지

club.catholic.or.kr/thekccm

Facebook 클럽

Facebook 검색에서
“매디슨 한인천주교회” 검색

이메일

kccmwi@gmail.com

2013년 5월 25 일

삼위 일체 대축일

<제 1 독서> 잠언의 말씀입니다..

<제 2 독서>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화답송

- ◎ 주님, 저희 주님, 온 땅에 당신 이름, 이 얼마나 크시옵니까!
- 우러러 당신 손가락으로 빚으신 하늘하며, 굳건히 세우신 달과 별들을 바라보나이다.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억해 주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아 주시나이까? ◎
- 천사보다는 조금 못하게 만드셨어도,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 주셨나이다. 당신 손으로 지으신 작품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아래 두셨나이다. ◎
- 저 모든 양 떼와 소 떼, 들짐승하며,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물속 길을 다니는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나이다. ◎

복 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은 영광 받으소서. ◎

복 음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6,12-15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아직도 많지만 너희가 지금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것만 이야기하시며, 또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영성체송] 너희가 하느님의 자녀이기에 하느님이 당신 아드님의 영을 너희 마음에 보내셨다. 그 영이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신다.

[오늘의 성가] 시작: 81 봉헌: 210 성체: 151 파견: 83



한 치과 의사가 평생 실천한 하느님 사랑

지난 5월 6일 서대문구의 한 허름한 치과에서 뜻깊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34년 동안 전국을 돌며 수많은 한센인을 찾아가 무료로 진료를 한 이 병원의 원장님에게 한센인 대표들이 감사패를 전달하러 온 것입니다. 원장님의 이름은 강대건 라우렌시오입니다. 서울 대신학교에 다닌 신부님들과 신학생들은 ‘아~ 그 선생님’ 하실 것입니다. 많은 신학생들이 강 원장님에게 무료로 치료를 받았고, 형편이 어려운 신학생들에게 용돈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희는 강 원장님께서 한센인들을 위해 봉사하신다는 이야기는 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강 원장님은 한사코 자신의 선행을 주변에 알리지 않았고, 큰 상을 준다고 해도 거절하셨다고 합니다. 그는 묵묵히 그저 자신의 운명처럼, 평생을 한결같이 봉사만 했습니다. 딸들조차 병원이 너무 허름하여 친구들에게 여기가 우리 아빠 병원이라고 단 한 번도 자랑스럽게 말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강 원장님께서 봉사를 시작하신 계기는 아주 우연한 경험을 통해서였습니다. 어떤 병원에 갔는데 한센인 한 명이 진료를 받으러 왔답니다. 그런데 병원 측에서는 돈을 집어 던지며 내쫓았습니다. “여기는 너 같은 문둥이가 오는 곳이 아니다. 병원문 닫게 하려고 작정했냐!” 그때 힘없이 돌아서는 한센인의 뒷모습을 본 강 원장님은 한센인을 위한 봉사를 결심하고 실천에 옮기셨습니다. 오래전에는 한센인들이 병원 진료는 엄두도 못냈을 뿐 아니라, 시내버스도 못 타고 잠잘 곳도 없어 공동묘지 옆에서 자는 일도 많았다고 합니다. 소외된 이들을 위한 강 원장님의 열정은 34년 동안 식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쫓긴 한센인의 모습으로 강 원장님에게 다가오신 건 아닐까요. 강 원장님이 감사패 전달식에서 하신 말씀은 오랫동안 듣는 이의 가슴을 울립니다. “김수환 추기경님의 말씀대로 가슴으로 하는 사랑이 어떤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봉사에서 얻은 기쁨과 보람이 커서 나는 다시 태어나도 봉사를 할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요한 16,13) 그렇습니다. 하느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하느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하느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에서 사랑, 기쁨, 평화, 인내 등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갈라 5,22-23 참조)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면서 동시에 셋이라는 삼위일체 하느님의 모습은 다름 아닌 사랑과 일치요 모범입니다. 사랑과 일치요 모든 생명의 원동력입니다. 사랑은 드러나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결코 교리적이거나 이론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는 하느님 안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웃을 위해 봉사할 때 하느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길입니다.

허영엽 마티아 신부 / 교구장 비서실 수석비서

† 공지사항

1. 성모성월 <성모님의 밤>
기도 단체들을 중심으로 5월 성모성월을 맞이하여 성모님의 밤을 갖고자 합니다.
일시 : 5월 31일 (금) 저녁 8시
장소 : 조은영(베다)자매님 댁(1305 Dewberry Dr. Madison)
준비물: 묵주, 개인 기도지향
2. 견진 성사 안내
일시: 2013년 7월 20일 (토) 5시
장소: St.Paul
집전: 인천교구 교구장 최기산 보니파시오 주교
세례 성사 이후 견진 성사를 아직 받지 않은 분들은 올해의 견진 성사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견진 성사 대상자는 추후 공지될 예정인 견진 성사 교육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3. 예비자 교리교육 안내
7월부터 예비자 교리 교육이 있을 예정입니다. 7월 교리반의 세례식은 오는 12월 25일, 예수 성탄 대축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4. 성경책 (2권: 1권 \$50) 과 매일 미사 책 (\$5)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황성필 회계 담당 사목위원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5. 5월 불야유회를 준비해주시고 참여해주신 모든 교우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음식을 준비해주신 자매님들, 고기를 제공해 주신 K Pepper, Lee Oriental 그리고 유신부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해 주신 사목위원들과 특히 행사와 게임을 준비해 주신 김태진 형제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동체 소식

< 성경 통독 모임 안내>

교우 여러분, 함께 모여 주님 말씀을 들어 보아요 금요일에 격주로 모여 성경을 통독합니다. 저녁 7시부터 2시간 동안 통독 합니다. 함께 주님 말씀을 들으며 은총의 시간을 나눠 보아요. 남겨 노소 누구나 환영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교우님은 연락주세요(전화 : 770 0291)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독서단 모집(계속)>

독서 봉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은숙 글라라 자매님 (esjeon95@mac.com) 혹은 김보미 로사 자매님 (bomi921@gmail.com)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교적 정리 (계속)>

교적 정리가 진행중입니다. 성당 입구에 비치된 교적 양식을 작성하셔서 교적을 담당하는 **홍진국 클레멘스 형제**님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는 성당 홈페이지 게시판의 양식을 다운받으셔서 작성하신 후 메일로 (jkhong2350@yahoo.com) 보내주셔도 됩니다.

<성가대 모집 (계속)>

성가대원과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교우분들께서는 지휘자 한영주리드비나 (lrdwinahan@gmail.com) 에게 문의하시거나, 미사전후에 지하 Music Room 에 직접 들려주셔도 됩니다. 교우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남성교우 기도모임 (계속)>

공동체의 남성교우 기도모임에 참여하세요, 격주로 모여 다함께 묵주기도 바치고 묵상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다음 모임은 **5월 31일 (금) 저녁 8시 사제관**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신부님 또는 홍진국 클레멘스 (jkhong2350@yahoo.com) 형제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